

면 좋겠다.

端宗大王的 胎室은 世宗胎峰에서 西쪽으로 約 1km 낮게 보이는 小峰 위에 마련되었다. 現在 胎室址에는 四川邑 崔某氏家の 墓一基가 있으며 石材는 山腹으로 散在埋沒되어 있었다. 그 部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龜趺……民墓 東南側에 放置되었으나 彫刻等 完全히 잘 남아 있다. (高 二·四二 長 五·八五 幅 四·二五)

② 螭首……碑身과 同一石이었으나 倒壞될 때 別個石 같이 碑上部가 切斷되었다. 埋沒되었었음인지 雲紋과 雙龍彫刻이 完全하다. (高一·八四 幅二·三五 厚一·一五)

③ 碑身……倒壞되면서 數片으로 破損되었는데 螭首와 함께 發掘되었다. 表面에는 字徑 六cm로 「大王」二字의 「陰刻」만이 남아 있고 裏面에는 字徑 四·五cm의 陰刻으로 「百七年甲寅」五字만이 殘存하였다. (現高一·七七 幅一·五六 厚〇·七)

④ 中童石과 上蓋蓮葉石……頂上의 寶珠만을 缺하고 完全하다. (高四·八五)

⑤ 地臺石……八角으로 完全한데 現在 民墓의 周緣石으로 使用되고 있다. (一邊長 最大 五·三五 最小 四·七三)

⑥ 磚石……八石일 것인데 七石만을 收拾했으며 그 中 再使用 가능한 것은 三石이었다. 여기서 端宗의 胎室은 祖王인 世宗의 胎室보다 는 매우 簡素하여 周圍 欄干石은 略한 것 같다.

現場에 持參했던 「胎室儀軌」의 排設圖와 實際 兩胎室의 石材를 比較 考察한 結果 若干의 相異點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첫째는 中童石과 上蓋石의 形態가 다르고 둘째는 그 밑의 臺石이 八角인데 儀軌에는 四角形으로 된 點等이라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現段階에서는 復原作業만이 큰 課題로 남아 있다. 兩胎峰에 設한 民墓의 緣故側에서 「國民된 良心에서 快히 原位置를 되 찾게」하여 完全復原의 길을 열어서 줄 것이며 여기에 곧 國家的인 事業으로 早速한 施行을 보았으면……하는 것이 온 國民의 熱望일 것이다. 다

만 國家的인 方策을 기다리며……끝으로 이번 調査에 三伏의 무더위도 무를 쓰고 現場에서 發掘調査에 盡力한 諸氏와 現地에서 物心兩面 많은 協助을 주시어 圓滿한 調査가 進行되게 해주신 四川郡守 金相朝氏와 鄭中圭 兩氏께 깊은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註

① 世宗·端宗胎室修改及表石豎立儀軌…考古美術同人會刊(考古美術資料 第十六輯)

② 儀軌에는 二重屋蓋形으로 되어 있으나 現場의 石材는 浮屠型으로서 八角中童石위에 單層屋蓋만이 높여 있다. (二六八頁 사진參照)

慶州皇吾里古墳 發掘調査 概要

秦 弘 燮

年次的으로 施行해 온 文化財管理局의 慶州市街地 發展에 따르는 古墳整理事業은 今年 七月 十九일부터 二十八일까지 十日間 梨花女大와 慶北大가 參加하여 施行되었다. 梨花女大는 皇吾里 一八號墳을 慶北大는 同三七號墳을 選定하여 各各 進行하였던 바 그 概要를 摘記하여 둔다.

皇吾里 一八號墳은 四號墳이 있었던 八友亭로 타리에서 佛國寺쪽을 向하여 約二〇〇m가면 왼쪽 鐵道 옆 仁旺里와 的 境界地點에 位置한다. 發掘前 封土는 이미 大部分 削除되었고 特히 南側에서는 積石의 一部마저 除去되어 原型이 매우 損傷을 입고 있었다. 周圍는 밭이 되어 밭 가운데 이 墳墓만이 오목이 솟아 있는 形이었다. 따라서 封土나 積石의 除去에 는 그다지 많은 時間이 걸리지 않았고 또 比較的 小規模였음으로 構造를 詳細히 究明하는데 注力하였다. 封土內에는 底面에서 五〇cm의 高低의 差를 가진 南北의 二柳이 長軸을 東西로 設置되었고 其의 그 中間地點 西側에 조고마한 土器柳이 있었다. 이 柳을 덮은 積石은 各各 別途로 덮였고 二柳을 中心으로 外周하면서 圓形으로 積石과 같은 크기의 石列이 있었다. 一部에서는 이 兩柳設置의 先後關係判斷에 示唆을 주는



兩個 石列의 接觸部를 찾을 수 있었다. (사진) 柳內에는 모 두 東枕하여 遺骸가 埋葬되었고 頭部 東側에 土器가 副葬되었다. 裝身具는 매우 貧弱하여 南柳에서 細環金製귀거리

一雙과 銀製腰帶의 痕蹟을 볼 수 있었고 北柳에서는 銀環 金製귀거리 一雙 靑玉과 勾玉으로 된 목거리 一連이 있었을 뿐이다. 그 외에 若干의 鐵製 利器 農具들이 들어 있었고 土器도 量과 質에 있어서 優秀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副柳의 土器도 十點未滿의 小量이었으며 特異한 것은 없었다. 여기 한가지 附言하여 들것은 積石의 北側 二個所에서 別個로 積石上에 暗葬된 小年의 遺骸가 있었고 積石上 東側에서 麗代의 銅匙 二點과 西側에서 同破片 一點 그리고 거의 中央部에서 銅錢 常平通寶 二點이 發見된 點이다. 이 一連의 遺物이 本質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遺骸는 暗葬으로 보면 고만이겠으나 銅匙의 發見에는 釋然한 解明이 내러지지 않았다.

三七號墳은 封土의 南側이 切斷되어 民家가 들어 앉았으며 北側은 比較的 原形을 保存하고 있었다. 積石木柳墳의 通式을 따른 墳墓로서 封土頂上에서 約三m 깊이에서 方形의 整然한 積石이 出現하였고 그 三個 隅角地點에 各各 土器가 놓여 있었음은 柳과 의 連關을 聯想케 하였다. 이 積石에서 다시 約一m 밑에 東枕하여 遺骸를 埋葬하였고 頭上에 土器가 副葬되었다. 土器層에는 一個의 鐵釜와 一個의 銅製鏃斗가 包含되어 있었고 裝身具로는 金製太環귀거리 一雙 金製勾玉付冠飾 一雙, 靑玉과 勾玉으로 된 목거리 一連이 있었고 冠帽의 裝飾으로 보이는 三色의 小玉이 相當量 發見되었다. 그 외에 棺의 位置를 表示하는 듯 西端에는 ㄷ形으로 鐵錠이 놓여 있었고 그 한 귀퉁이에 土器가 놓여 있었다. 다만 太刀

가 發見되지 않은 點은 或 被葬者의 性別과는 무슨 關係가 있거나 않을 가 一 번에 調査된 柳의 位置는 南側에서 切斷된 封土도 아울러 생각한 다면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됨으로 다시 南側으로 트렌치를 넣어 보았다 니 積石의 一部가 나타나서 또 하나의 柳이 豫想되었으나 이것마저 發掘하자면 民家에 까지 延長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음 機會로 미루고 一段落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泗川舊坪里貝塚發掘調査概要

鄭 永 鎬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慶尙南道 泗川地區 先史時代의 遺蹟調査計劃에 따르는 第一次 調査로 지난 七月 十五日부터 二十七日까지 泗川郡 西浦面 舊坪里의 貝塚 一處를 發掘調査하였다.

現在 泗川郡內에 遺存하는 貝塚는 意外로 많은 편이며 ① 이곳 西浦面만도 數處 있으나 今番 舊坪里의 貝塚를 發掘케 된 것은 六月中旬 泗川郡守 金相朝氏의 紹介로 現地를 踏査한 바 ② 貝塚의 位置가 道路邊 이어서 나날이 많이 破壞되어 間을 目擊하여 貴重한 先史遺蹟을 收拾코자 時急히 着手케 된 것이다.

이번 發掘調査에는 筆者가 主管하여 史學科生 男女十七名이 參加하였으며 同人 申榮勳 金東賢兩氏가 實測을 擔當하고 發掘進行과 遺物收拾까지도 指導해 주어서 計劃대로 圓滿한 作業이 遂行되었다. 今般 施行된 發掘調査의 詳細한 內容은 앞으로 發刊될 報告書에 依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發掘의 進行과 出土된 諸遺物의 內容을 略報코자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貝塚는 道路邊인데 西浦面所在地에서 東쪽으로 三〇〇m 慈惠行 道路를 二年前에 新設할 때 貝塚의 北쪽 一部가 끊기어 現在는 道路南側으로 斷崖를 이룬 地層속에 貝殼이 露出되어 있다. 地下七〇cm에서 시작된 貝層은 西쪽으로 漸次 깊어져서 길이 十三m 되는